

# ‘해남 김’ 풍작에도 울상... 위판액 18% ‘뚝’

### 내년산 김 651만t 생산 위판액 60억원...생산량 전년비 64% 늘어 수은 상승에 붉은갯병 발생...120kg들이 포대당 가격 5만원 떨어져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남의 김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량은 늘었지만 위판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 상승에 따라 붉은갯병(고춧가루병)이 발생 품질이 떨어지면서 위판가격마저 곤두박질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위판을 시작한 2023년산 김 생산량은 지난 27일 기준 651만t으로, 59억 9904만원의 위판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6만t을 생산해 위판액 73억 244만원과 비교하면 생산량은 64% 증가했으나 위판액은 오히려 18% 감소했다.

군에서는 전반적인 채묘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고, 지난해보다 10여일 빨리 위판을 시작해

일반 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곱창김 위판이 일찍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송지면과 화산·현산면 등 일부 김양식장에서 붉은갯병이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진 것도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붉은갯병은 붉은갯병균이 김 엽체에 기생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김 엽체 표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결국에는 구멍으로 확대하는 질병이다.

수은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통 12월에 발생해 2~3월에 가장 많이 관찰됐으나 최근에는 이른 시기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해남의 올 평균 바다 수은은 13.4도로 조사됐다. 지난해 12.2도에 비해 1.2도 상승한 채 떨어지지

않고 정체돼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량이 늘고 품질이 떨어지면서 위판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최근 김 위판가격은 120kg들이 한 포대당 최저 4만원에서 1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가격이 5만여원 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갯병에 감염된 김을 미리 채취해 전염을 막는 등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점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김 양식 해역에 발생한 붉은갯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품질 김 생산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비가 오고 추워지면 해수의 온도가 내려가 갯병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붉은갯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품질 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송지 어란항 물김 위판 모습. <해남군 제공>

## 신안 퍼플섬에 ‘퍼플 산타’ 오셨네



지난 28일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박우량 군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퍼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가 열렸다. <신안군 제공>

### 반월·박지도에 보라색 트리 설치...내년 1월까지 보라색 조명도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에 보라색 트리가 설치됐다.

신안군은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조명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보라색 옷을 입은 대형 산타클로스 조형물이 섬을 찾는 방문객을 반

갑게 맞이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퍼플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과 화합의 보라색 조명을 설치했다.

보라색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퍼플산타와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퍼플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힐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섬에 밝혀놓은 사랑의 보라빛 조명이 모두에게 꿈과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신안천사김’ 수출 1억 달러 ‘수출탑’



(주)신안천사김 공장 내부 모습

### 국내 최대 김 생산공장 연간 조미김 7900t 생산 미국·캐나다·일본 등 수출

신안군 소재 한 김 생산업체가 수출 1억 달러의 금자탑을 쌓았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압해읍에 소재한 ‘주신안천사김’이 오는 12월 무역의날 행사에 1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주)신안천사김은 김 수출 전국 1위 기업으로 2012년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2013년 공장 가동 첫해부터 수출 시작으로 2014년 수출 2000만달러, 2020년 7000만 달러 달성 수출 기념탑을 수상한 바 있다.

연간 생산하는 조미김은 1900 t으로, 이 가운데 80%는 미국으로,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지

구까지 5000억원 이상의 조미김을 수출하여 매년 수출탑 기록을 경신 중인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김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받은 국제인증(USDA, HALAL, FSSC22000 등)만 9개로 특히, 세계5번째(국내최초)로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인증획득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청정 신안 앞바다에서 옛날 방식으로 양식한 지주식 김을 원료로 120여개 품목의 유기농 김만을 수출하는 등 ‘매출 기준 전세계 유통기업 3위인 코스트코(미국)’의 최고 고객이기도 하다.

또한 (주)신안천사김은 신안군 장학재단 2억원 원, 복지재단 5억원 원, 어려운 이웃 등 낙도지역 후원 5억원 원 기부 등 이웃사랑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지방세 39억원 납부, 230여명의 종업원 중 50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안군과 상생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일회용품 줄입니다”

### 목포시, 카페 등 현장 캠페인

목포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집중 홍보한다.

목포시는 지난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등이 추가로 사용 금지됐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일회용 봉투와 소포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도·소매업(33㎡ 초과) 매장 등은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도 신설됐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율 감량을 유도한다. 캠페인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주문할 경우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60억 선지급

### 농가 경영 안정화 기대

진도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60억원을 11월말 선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의 추가경정 예산이 12월에 확정되지만 올해 실행 하향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자재값 급등에 따라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5402농가에 160억을 선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으로 운영되고, 지급단계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관내 5402농가로 ▲면적직불금 2956농가(130억 5500만원) ▲소농직불금은 2446농가(29억 3400만원)를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농촌인력 부족과 쌀값 하락, 병충해, 가뭄 등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17가지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 임금 미지급 위반 사업장 64개소 적발

### 고용청, 노무관리 현장 점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2022년도 관내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 걸쳐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해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등 4대 기초노동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이번 노무관리지도 점검은 사전계도 후 식료품 제조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취약 사업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69개소 중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업장 64개소(위반율 92.7%)가 적발됐다.

50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을 미지급(1억 5200만원)했으며, 47개소에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

또 9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6100만원), 4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00만원) 등 모두 169건이 적발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댓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기초노동절서를 확립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기초노동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목포 소외이웃에 따뜻한 ‘나눔 손길’



헤인여자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겨울나기를 위한 생필품 꾸러미를 죽고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익명의 독지가, 상동에 라면 40박스 용당1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연말연시를 맞아 목포시에서 취약계층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상동에서는 익명의 독지가가 라면 40박스(120만원 상당)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상동행정복지센터로 기탁했다.

죽고동에서는 지난 24일 헤인여자중학교(교장 이자향)가 겨울나기를 위한 생필품 꾸러미 19상자를 죽고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꾸러미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각자 가져와 학급별로 마련했는데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전달돼 훈훈함을 더했다.

이 밖에도 재건교회 사랑의봉사단(단장 강만선)이 생닭 20마리를, 따뜻한북향사람들(대표 여양호)이 부식꾸러미(김치, 명태, 간식 등) 7개세트와 과일 7개 상자를 각각 죽고동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용당1동에서는 용당1동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김관임)가 자원봉사자 등 20여명과 함께 지난 24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용당1동새마을부녀회는 직접 버무린 김장김치를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2개소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관임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행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더 행복한 용당1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